태고종, 39명 구족계…“행동하는 수행자 되길”

7월 23일, ‘24차 구족계 수계산림’
비구 28명 · 비구니 11명 홍가사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할 것”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태고종이 7월 23일 제24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총 39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사진은 연비의식을 하는 모습.

태고종의 사미·사미니 39명이 구족계를 받고 홍가사를 수했다. 정식 스님으로 첫발을 내디딘 스님들은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4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비구 스님 28명과 비구니 스님 11명을 배출했다. 수계자들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4년간 선암사 전통강원, 동방불교대학 등에서 종단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구족계 수계산림은 오전 입재식과 율장강의, 오후 구족계 수계법회로 나눠 진행됐다.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율원장 수진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고시위원장 휴완 스님, 한국불교신문사장 청호 스님, 교육부원장 지관 스님,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 등이 참석해 구족계를 수지하는 스님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며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할 수 있는 불심과 신심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구족계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한 만큼, 지금까지의 정진이 헛되지 않도록 후배 스님들에게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태고종의 정통성과 종단 발전의 초석이 되는 데 있어 스님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이날 수계를 받은 스님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도 “구족계를 받고 가사를 수한 스님들은 더욱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이라며 “내면을 단단히 다져 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해동율맥 전수조교 대진 스님의 ‘비나야장의 요체’ 율장 강의에 이어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수계법회가 열렸다. 수계의식은 전계아사리 중앙율원장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갈마아사리 호법원장 구산 스님이 삼화상으로, 재홍·능해·금담·휴완·청호·지허·지관 스님이 칠증사로 나섰다.

교수아사리 시각 스님은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 법 13가지와 수계 가능한 법 16가지를 구족계 수계 대상자들에게 확인했으며, 호궤합장한 수계자들은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연비의식에 이어 홍가사를 정대한 수계자들은 불법(佛法)의 전승과 실천을 약속했다.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은 “계란 곧 행위이며,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온전한 마음이 곧 계요, 온전한 계가 곧 마음이다. 구족계는 수행자가 굳건히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계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또 △대중을 거두기 위해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대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이미 믿는 자로 하여금 더욱 믿게 하기 위해 △조복하기 어려운 자로 하여금 조순케 하기 위해 △뉘우치는 자를 편안케 하기 위해 △현재의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래의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등 율장을 제정한 10가지 목적을 설명하며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이 불안할 일이 없고, 어느 자리에 있든 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제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회에는 태고종 스님들과 동남아·유럽 등에서 초청한 스님들이 동참해 대규모 법석이 열릴 전망이다.

집중 호우로 사찰 피해 잇따라

7월 17~21일, 50여 사찰 피해
침수 · 붕괴…석굴암 관람 제한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닷새 넘게 이어지며 지역 사찰들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제6·7교구 본말사와 제12교구 본말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총무원이 7월 17~21일 집계한 전국 사찰 피해현황에 따르면 충남과 경북, 전남, 경남, 세종, 울산 지역 사찰 50여 곳이 토사 유입, 축대 붕괴,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하천이 범람했고 공주 동혈사와 아산 봉곡사, 천안 광덕사는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주 동학사도 사면 일부에 토사가 유실됐고 부여 금자암은 화장실 외벽 지붕이 파손됐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나무가 전도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까지 유입된 상태다. 특히 초반 호우가 중부지역에 집중되면서 충남 예산과 서산 지역 제7교구 말사들에 피해가 큰 상태다. 서산 개심사와 홍성 용봉사엔 토사가 유입됐고 용봉암은 축대가 붕괴됐다. 문수사는 토사가 유입되면서 진입로가 붕괴됐다. 또 천장사는 경내 토사가 유입되면서 건물 피해까지 입었다. 죽사는 토사 유입과 공양간이 침수됐다. 일락사는 진입로 유실 피해를, 서광사는 경내 토사 유입 피해를 입은 상태다. 예산 견성암은 사면이 붕괴되며 공양간과 요사채가 침수됐다. 보덕사 경내에는 자갈이 유입됐고 향천사는 천불선원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산청군에는 평균 632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조계종 제12교구본사와 말사들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산청 심적사는 산사태와 전봇대 전도로 진입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선방 지붕 기와도 일부 탈락됐으며 토사가 유입됐다. 정취암과 황매사, 고운사는 산사태로 진입로가 차단됐다. 문수암은 공양간 뒤편 산사태로 일부 파묻힘과 침수가 발생했다. 경내와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돼 템플스테이를 온 방문각 차량 포함 총 6대가 파손됐다. 지곡사는 법당 뒤 축대가 4~5m 붕괴됐다. 요사채 뒤편 축대도 붕괴돼 주의를 요한다. 송덕사는 칠성각 전각 축대가 파손돼 비닐로 덮어 임시 조치했다. 전기, 인터넷, 전화기가 단절된 상태며 지자체와 진입로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 백련사의 경우 마당에 물구덩이가 생겨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진입로 나무 등 토사물 잔해로 진입 불가하다. 용흥사는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토사가 유입되고 나무 잔재로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봉두사는 사찰 담장 일부가 파손됐다.

7월 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역대급 호우에 피해를 입은 불교 관련 유산은 2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석굴암은 호우로 인해 진입로 사면 일부가 유실됐으며 서산 개심사 대웅전은 경내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은 경주 석굴암 진입로에 출입제한 경고문과 안전선 설치했으며, 서산 개심사 경내로 유출된 토사에 대해서는 출입 방지를 위한 우장막 설치 등의 임시 조치를 완료했다.

국가유산청은 7월 17일 오후 5시를 기해 국가유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또 각 지자체에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국가유산 관람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임은호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의 벽체 일부가 무너지고 토사가 법당 안까지 밀려드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진각종, 조계종 화재 피해 복구 기금

능원 정사, ‘빠른 복구’ 염원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1억원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7월 18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능원정사는 “복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면서 “진각종도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을 소개하며 “행사 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각종 총무부장 법운 정사, 포교부장 원영 정사, 사서국장 도원 정사도 함께했다.

7월 25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로 임명된 원경 스님도 당일, 원활한 화재 복구 염원을 담아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 세계로…불교영어교육 성료

조계종 사회부, 7월 19~20일
‘2025 YES! DHARMA101’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7월 19~20일 수원 봉녕사에서 한국불교 해외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2025 YES! DHARMA101’ 불교영어교육을 진행했다.〈사진〉

‘영어로 배우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 이번 ‘YES! DHARMA101’은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불교 영어를 활용한 번역 활동에 관심 있거나 종단해외포교 및 홍보 활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청년불자 16명이 함께했다.

프로그램 첫째 날에는 통번역가로 활동 중인 민우 스님(중앙대 한영 통번역학과 석사)이 사찰 및 교리에 대한 불교용어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사찰예절습의, 붓다볼명상, 타종체험 등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선명상에 이어 게임형식의 퀴즈를 통해 첫째 날 배운 영어들을 복습하고 불교영어와 보다 친숙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조별 활동으로 절하는 방법을 외국인에게 재미있게 알릴 수 있도록 영어 쇼츠를 제작해 보는 등 강의와 실습이 결합된 형태 수업이 눈길을 끌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홍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야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미륵도량
설두산+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